

## "소장기록물 정리/기술 체계 개선과 기술정보 활용"(김현진, 2019)에 대한 토론문

소준철

(준)도시상공업연구자네트워크

우선 타 전공자에게도 의견을 물어주신 국가기록원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만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원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세세한 이해가 없는 사용자 중 하나이기에 어느만큼 유효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는 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의 작업에서 시도한 <Research Guide(연구조사가이드, 2017)>의 샘플 구성과 <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의 맥락연계가이드(2018)>의 샘플 구성 작업을 진행하며 갖게 된 기록활용에 대한 고민에 국한해 '주제별 검색'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록물군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에 연계된 기술요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물계열의 탐색에 있어 '기록물과 유관한 조직' 혹은 '관계된 기록물철'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NAA에서 국방 관련 컬렉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Series' - 'Sub-series' (Service Details) - 'Authority Record' (Agency/Person Details) - 'Items' 으로 구성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각 개체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우선 'Service record'에서 주요한 '조직'을 보여주고, 각 조직과 연계된 '시리즈'를 보여줍니다. 각 '시리즈'에 접근하면 기록물의 생산기관의 스케일(전국, 지역)에 따라 각 기록물(case file)의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Series Details'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며, 여기에서 Items 과 Agency/Person 등에 관한 정보, 시리즈 정보, 관련된 시리즈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주제로 국가기록원에서 전쟁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정리/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컬렉션인 '6.25 전쟁'은 '개요 - 단계별 개관 - 더보기 - 주요 기록물 소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은 하위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서술은 존재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가진 기록의 생산맥락을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주요 기록물 소개'에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기록물건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일부만 제공될 뿐, 기록물철에 관한 정보가 없기에 기록물 자체의 생산맥락(원질서)은 알 수가 없습니다(기록물 관리번호로도 기록물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sup>1)</sup>

---

1) 무엇보다 웹포털 방식의 아카이브라면 기록물건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기록물철에, 기록물철을 통해 기록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컬렉션의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간척사업'의 '관련기록물 목록'창입니다. 여기에서 기록물을 확인하고, 기록물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첫 화면의 검색창에 철관리번호 중 하나인 "CET0043674"를 검색하게 되면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컬렉션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색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계층별 기본검색에서는 ‘통일국방’을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산기관으로 한국전쟁에 대해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어떤 조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언급하신 기록물군 개념을 위주로 한 기술체계의 단점인 셈이겠지요?) 그렇다면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국가기록원에서 ‘한국전쟁’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1,767개의 기록물건과 유형별 분류, 재분류를 위한 탭, 1,339건의 기록물철과 유형별 분류, 재분류를 위한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물철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산기관은 총 70개, 생산년도는 10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생산기관의 경우, 가장 많은 자료를 생산했을 법한 국방부의 기록물철은 44개에 불과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생산한 기록물철은 793건이나 됩니다. 이 경우 한국전쟁에 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시도를 어디에선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만, 이를 찾기 위해서는 생산기관 변천정보에 들어가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천정보의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물의 생산 맥락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모 기관의 조사연구가이드(리서치 가이드)를 만드는 경험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이기도 합니다. 발표자 역시 유사한 고민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확고한 점은 기능의 분류가 중요하지만, (기관에서의 조직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라도) **생산기관의 변천정보와 기능정보를 충실히 작성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컬렉션의 소개, 혹은 시리즈 혹은 기록물(철/건)의 가이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첫째와 연결되는 고민입니다만) 기록물을 열람할 때 (기록물의 원문 제공 유무를 떠나) 기록물의 메타데이터에 최단경로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가기록원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기록물 539점)란 주제컬렉션에 접속합니다. 이때 컬렉션의 카테고리는 ‘한국의 스포츠’, ‘세계 속의 한국’, ‘다시 보는 그 날의 영광’, ‘주요기록물 소개’으로, 하위주제에 따른 카테고리(3개), 유형별 카테고리(1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주제별로 된 하위카테고리에 접근한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요종목 선수권대회’에 들어가고 또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컨대 ‘축구’까지 접근한다면, ‘[LV1] 국제스포츠대회 - [LV2] 세계 속의 한국 - [LV3] 주요 종목 선수권대회 - [LV4] 축구’를 거쳐 “CET0029079(5-1) 한국축구단환송시가행진”의 사진 한 장과 500자 정도의 애매한 설명 뿐입니다. 더욱이 해당 사진의 기본적인 메타데이터(기록물철 정보, 생산자, 생산일자 등)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록(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못 하는, 이 국가기록원의 컬렉션은 이용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록물의 열람에는 메타데이터의 열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록에 접근하는 ‘[LV1] 국제스포츠대회 - [LV2] 축구’ 정도로 접근에 걸치는 과정을 단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후에 ‘축구’ 경기로는 “[현재] 4년 주기 월드컵, 아시아컵, [과거] 기타 국제대회”등이 존재하며 각 사건에 해당하는 기록물(철/건)을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접근 경로의 단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록에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란 기록자체를 정렬하여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기록을

**탐색/이용하는 방법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물 소개(collection)의 경우, 기록물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생산맥락, 관련 조직, 인물, 주요한 기록물(검색도구의 활용), 해당 collection 자체의 생산 정보 등을 담아야 합니다. 즉, 기록물의 생산정보, 기록물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내부에 배치된 검색도구(finding aids)의 생산 정보까지를 대상으로 한 정리/기술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간척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겠습니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 “간척사업”의 설명글(생산일자 미상)을 읽고, 관심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우측의 “관련 기록물(명)”, “관련 기록서(생산기관의 기술정보)”, “(BRM에서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분야 콘텐츠”, “(여타 다른 컬렉션으로 연결하는) 관련 콘텐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기록서”, “국정분야 콘텐츠”는 기록물의 생산기관, 기능과 관련이 있고, 해당 기록물의 생산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탐색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능 설정을 통해 연관된 사업과 상-하위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소장 중인 ‘간척’에 관한 기록물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검색을 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접근 가능한 서비스란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검색 행위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정리/기술과 검색도구는 끊임없이 판올림되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가이드’와 ‘카탈로그’ 역시 기록물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 기록의 생산맥락 역시 충실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이드’가 지닌 정보의 현재적 가치를 파악하며,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주관적인) 설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능의 계층을 나누는 문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록물을 소개하는 가이드에서 제시한 방법은 (1) 주제별 분류, (2) 유형별 분류(물리적/행정적)입니다. 여기에서 (1) 주제별 분류의 경우, 조직 혹은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에 따라 조직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우 그 명칭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기능과 달리 ‘사업’의 기능적 요소를 추적해야 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광장은 50여년 동안 (공군비행장,) 5.16 광장, 여의도공원, 여의도시민광장 등으로 그 사업이 변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 혹은 대상의 변천을 반영한 활용법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2) 유형별 분류의 경우, 기록물(철/건)의 행정적인 단계에 따라 분류될 필요도 있으며, 또한 물리적 형태 역시도 반영한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기술요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도구, 충분한 메타데이터의 제공, 기록 탐색/이용 방법의 제공, 꾸준한 판올림, 기능계층의 구성(조직/사업, 행정유형/물리유형) 등에 대한 제언을 적어 보았습니다. 타전공자가 팬스레 아는 척을 한 건 아닌지, 도움이 되는 의견이 되길 할런지 걱정입니다. 다만 더 나은 서비스를 넘어 기록의 관리/보존/활용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주시길 기원하는 마음 정도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